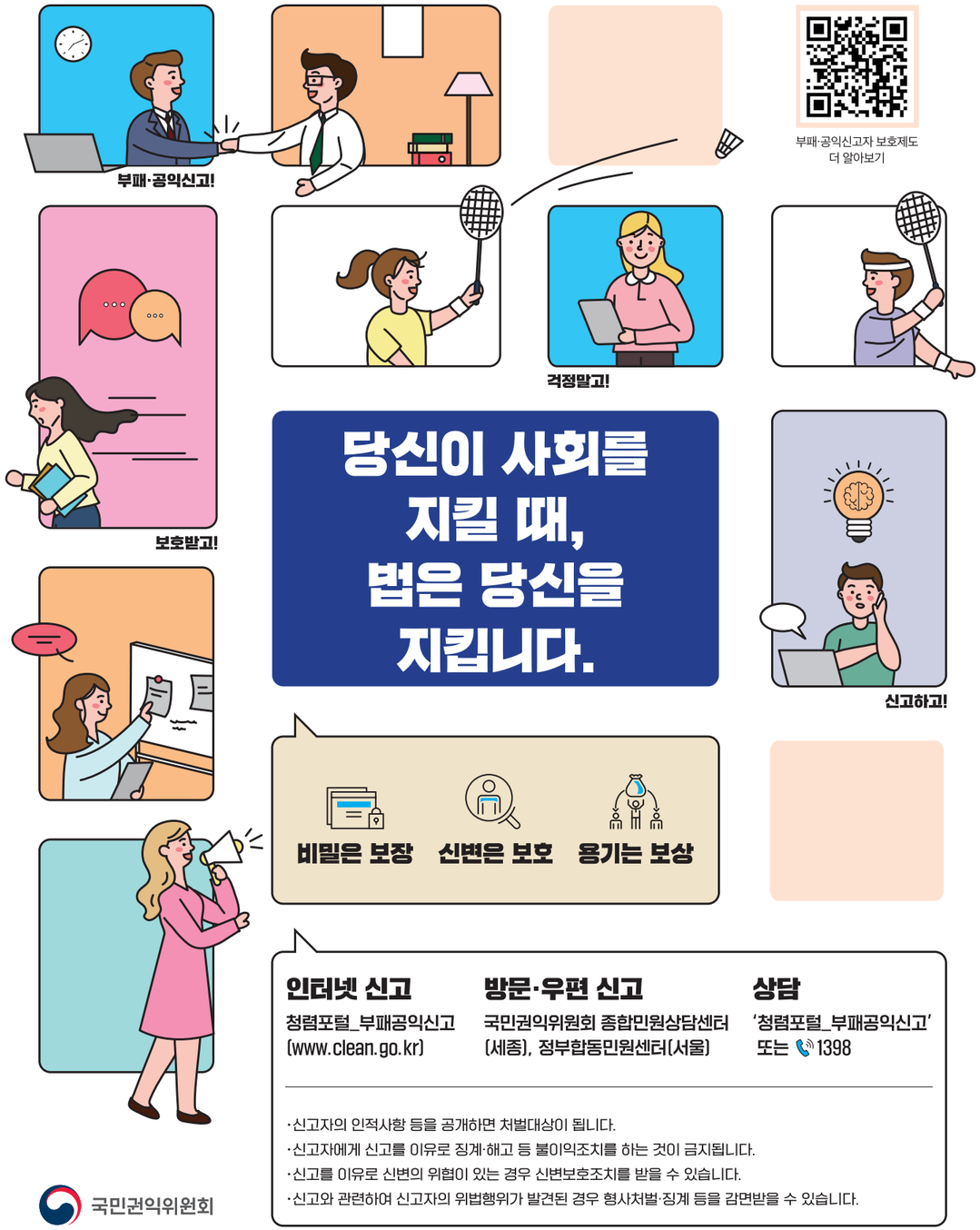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인터넷 신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398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1 vol.484
2022 NOVEMBER

행복한 교육

02 꿈이 영그는 현장
대구 계성고등학교
'수능 응원 디너콘서트' 열어 감동 선사

06 네 꿈을 펼쳐라
한국관광공고 여행동아리 '트레블 메이커'
꿈꾸던 여행하며 꿈 찾는 우리들!

34 교육웹툰
학교 기후·환경교육 한자리에~

48 진로직업인
스포츠심리상담사_김미선 대표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교육부

행복한 교육

11
vol.484 2022 NOVEMBER

COVER STORY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연습했던 웅장하고 힘찬 곡들이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계성고 잔디광장에서 3학년들의 수능시험 응원을 위한 디너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계성고 관현악부, 인근 중학교 관현악부, 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원, 학부모가 함께했다. 수험생들에게는 자신감을, 연주자에게는 성취감을, 지역에는 문화의 향기를 선물하는 시간이었다.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발행처 교육부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김하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안광석, 이경화, 정선경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존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획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16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는 국가 책임제 실현

20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24
전문가 집단 한자리에 모여 위기학생 맞춤형 다중 지원

28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자료 여기에…

02 **꿈이 영그는 현장**
대구 계성고등학교
'수능 응원 디너콘서트' 열어 감동 선사

06 **네 꿈을 펼쳐라**
한국관광고등학교 여행동아리 '트레블 메이커'
꿈꾸던 여행하며 꿈 찾는 우리들!

10 **에듀피플**
임석환 경북 영천 산자연중학교 교장
학교 밖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여정

30 **정책을 말하다**
2023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방안
평생교육 시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학자금대출 지원

34 **교육웹툰**
학교 기후·환경교육 한자리에~

36 **교육자치시대**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적 돌봄

39 **이달의 교육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방향 제시 外

41 **명예기자 리포트**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날개를 달다!" 外

44 **교육포커스**
대안교육 25년, 다시 '삶을 위한 인생학교'를 꿈꾸며

48 **진로직업인**
스포츠심리상담사_ 케이스포츠심리상담센터 김미선 대표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52 **체험! 진로현장**
즐거운 스포츠와 만나요!

54 **일상의 쉼표**
돌담 따라 물길 따라 마을 산책
아산 외암민속마을

58 **교실혁명**
학생주도수업 설계 돕는 '플랜보드'

62 **혼자보기 아까워서**
기록이 유산이다 外

64 **독자마당**

대구 계성고등학교

‘수능 응원 디너콘서트’ 열어 감동 선사













올해 수능은 11월 17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에도 영향을 줄 만큼 수능은 한 해의 통과의례가 되었다. 이날 누구보다 긴장할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마음을 모은 응원의 노래가 있는 곳으로 향해보았다.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계성고등학교 (교장 박현동) 관현악부가 연주하는 승리의 팡파르는 모두에게 마법 같은 주문이다. 수험생들에게는 자신감을, 연주자에게는 성취감을, 지역에는 문화의 향기를 선물해 왔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정취를 더한 관현악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자.

글_편집실

123456

지난 10월 20일 계성고 잔디광장에서 3학년들의 수능시험 응원을 위한 디너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계성고 관현악부, 인근 중학교 관현악부, 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원, 학부모가 함께했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합주로 전하는 힘찬 응원가 “선배님들, 파이팅!”

“이 자리는 수능을 앞둔 선배님들을 힘찬 관현악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으니, 후배들의 연주에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1학년 이정민·김민서 학생은 어스름 해가 떨어지는 가을 저녁에 교내 중앙정원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0월 20일 계성고등학교 잔디광장에서는 3학년들의 수능시험 응원을 위한 디너콘서트가 펼쳐졌다. 오후 5시 40분부터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관현악부와 인근 중학교 관현악부 및 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원, 학부모가 함께했다.

계성고등학교 관현악부가 ‘팡파르’로 힘차게 공연의 포문을 열자 객석에서는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음으로 이어진 곡은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팀파니와 대북 소리가 여러 관악기와 어우러져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이윽고 영화 국가대표 OST로 유명한 가요 ‘버터플라이’와 비틀스의 ‘Let it be’가 연주되자 객석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관현악부의 연주 사이에 재학생 학부모 플룻 5중주 연주와 댄싱부 공연, 초청 독창과 바이올린 독무대가 이어졌다.

특별히 이날은 개교 116년을 맞아 학부모와 재학생 116명으로 이루어진 대합창단이 눈길을 끌었다. 자유롭게 꿈을 펼치기를 기도하는 가요 ‘마법의 성’을 김세현 교사의 지휘에 맞춰 다 함께 부르며 고3 수험생을 응원했다. 공연 후반부는 관현악부가 영화 마블의 OST ‘어벤저스’로 공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키보드를 맡은 정소미(1학년) 학생은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하나둘씩 켜지는 휴대폰 플래시를 잔디광장에서 바라보니 커다란 우주 안의 수많은 별이 연주하는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내년에도 더 좋은 곡들을 좋은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며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공연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공연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의 역할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박현동 교장은 “후배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연주회를 통해 수능을 앞둔 선배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 3학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차분하게 평소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자.”라며 격려했다.

10월의 가을밤을 온전히 느끼며 공연 내내 자리를 지켰던 박성원(3학년) 학생은 “음악실을 오가면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후배들의 연습 소리를 들으며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콘서트에서 연주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며칠 남지 않은 수험생활을 끝까지 힘내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송승헌(3학년) 학생도 “후배들이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이렇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어 놀랍다. 저녁 식사 시간에 훌륭한 연주를 듣게 되어 다시 힘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합창에 참여했던 학부모 이덕재 씨는 “멋진 교정에서 합창을 하고 있으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벅차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날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이지윤(2학년) 학생은 “선곡에 고민이 많았는데 선배들에게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소중한 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아코디언 연주로 함께했던 손미라 연주자는 “김세현 선생님과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했다.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라고 전했다.

관현악부를 담당하며 이번 콘서트를 주관한 김세현 음악 교사는 “이번 콘서트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응원을,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는 활기를 전하는 전교생 힐링 음악회였다.”라고 평가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악기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 따뜻한 정서가 흐르게 되는 것을 느낀다. 앞으로도 1인 1악기를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7 객석에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선배들

8 디너콘서트 중앙 무대



하루 10분으로 만들어 가는 역사

양윤정(2학년) 학생은 “관현악부는 매주 수요일 7교시 동아리 시간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음악실에서 전체 합주를 연습했다. 특히 음악실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고 늘 열려 있기 때문에 틈틈이 개인 연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지윤(2학년) 학생은 “악기를 다뤄 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후배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매일매일 연습했던 짧은 시간들이 모여 그동안의 공연들을 만들어 냈고, 그 시간들이 바로 113년의 관현악부 전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관현악부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

입학 전까지는 악기를 다뤄보지 않았던 학생들도 관현악부 활동을 통해 트럼펫,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 파트별 강사로부터 연주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도 받는다. 홍준기(1학년) 학생은 대부분 누구나 어렸을 때 배우는 피아노 정도만 해봤지, 튜바를 처음 다뤄 보는데 저음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세현 교사는 “학년 초에 열정과 성실성을 갖춘 부원을 선발해 꾸준히 연습한다. 강사들은 우리 학생들이 약속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한다. 개학하는 날 등굣길 모닝콘서트를 시작으로 미니 콘서트, 런치 콘서트, 디너콘서트 및 크리스마스 공연까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8

학생 만족도 높은 ‘자율과 책임 교육’

“10점 만점에 10점.” 홍준기(1학년) 학생과 곽도원(1학년) 학생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홍준기 학생은 계성고에서 중3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문사회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의학 동아리, 관현악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곽도원 학생도 진학의 이유로 동아리 활동과 학교의 커리큘럼을 꼽았다. 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여러 사람과 만나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계성고등학교는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랜 명문이다. 1906년 미국인 선교사 아덤스(한국명 안의와)가 대구시 중구 대신동에서 개교했다. 설립 초창기 건물들은 대한제국 시절 건축사를 엿볼 수 있기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1919년에는 계성학교가 주축이 되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아담스관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계성고에서는 그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대구시 서구 상리동으로 교정을 옮겨서 자율과 책임, 개척정신을 강조한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학부모 박효숙 씨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의 뒷받침이 좋았다. 또 계성고의 교육이념에 공감했고,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며 자랑했다.

계성고 졸업생인 박현동 교장은 “계성인은 역사 속에서 도전하고 개척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고등학교
여행동아리 '트레블 메이커'
(Travel Maker)

꿈꾸던 여행하며 꿈 찾는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화는 관광산업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모두가 좋은 것보다 내가 좋은 것'에 반응하는 개별 수요자 맞춤으로 관광콘텐츠도 차별화, 세분화되고 있다. 여기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관광특성화고등학교 동아리가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관광고등학교(교장 김기성) 여행동아리 '트레블 메이커'가 그 주인공이다.

글_편집실

여행 좋아해? 나만 따라와!

2014년 창단된 '트레블 메이커' 초창기에는 여행업 관련 직무 실습을 중점에 둔 동아리 활동이 주를 이뤘다. 요즘은 관광통역사, 항공승무원, 호텔리어를 꿈꾸는 다양한 학생들이 관광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광일본어통역과 허우림(2학년) 학생은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이나 아산의 지중해 마을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해외여행 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관광지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광중국어통역과 김민송(1학년) 학생은 "불국사 같은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여행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부원들은 자신이 직접 계획한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 후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동아리 공식 SNS에 공유하며 자기만의 독특한 여행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브 채널인 '한마음 산악회'를 패러디한 강원도 홍천 가리산 여행 영상을 제작했다. 주성연(2학년) 학생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친구 집 주변의 명소를 직접 개발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니 더 재미있었다."라고 전했다. 윤예원(1학년) 학생은 "선배들이 다녀온 여행 후기를 보고 나니 집 근처 파주 헤이리를 직접 소개하고 싶어졌다."라고 말했다.

이호성 교사는 "동아리에서는 여행 주제, 여행 일정, 소요되는 비용과 결산 등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한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PPT 기획과 발표,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경기바다 랜선 여행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2020년에는 영산대학교가 주최한 영산 K-고교생 투어플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내 유네스코 동아리인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연합해 울릉도와 독도 탐방을 다녀온 뒤 홍보영상을 제작했고, 서울지하철 노선을 중심에 둔 여행상품을 자체 기획해 탐방을 다니기도 했다.

이처럼 모든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해 온 부원들은 여행상품 기획과 가이드 실무 능력을 겨루는 교내 관광마스터즈 대회에서 매년 수상을 놓치지 않고 있다. 또 개교기념일을 즈음해 개최되는 교내 비전 축제에서 여행사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상품 기획과 서비스 관련 여행사 실무를 소개하고 현장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관광 인재는 바로 나!

특히 트레블 메이커는 여행상품 기획 및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인 하나투어 투어챌린저 하이스쿨 프로그램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합격자를 배출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투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투어챌린저 프로그램의 고등학생 버전이다. 전국의 관광 관련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 실무교육과 해외탐방, 실습 등을 경험해 여행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PPT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 등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과한 24명만이 남는다. 이 교사는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전국에서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실용외국어능력을 갖춘 관광산업 인재 육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관광고등학교는 학년별로 관광실무체험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1학년 때는 드림투어라는 이름으로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일본어통역과, 관광중국어통역과 등 전공과에 따라 각 나라로 문화체험 여행을 떠나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2학년 때는 국내 비전투어를 통해 각 지역 핵심 관광지를 개발해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3학년 때는 학생 스스로 모든 일정을 계획하는 해외 미션투어를 떠난다.

이 과정에서 부원들은 체험여행지의 핵심 관광자원을 발굴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평택시가 주관한 '평택 강길 따라 나루터 이야기'에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본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 외에도 인천 강화도, 부산, 호주, 중국 등 국내외 지역의 다양한 관광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왔다.

이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여의찮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동아리 부원들이 꾸준히 학습하고 자기 계발을 하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1 여행사의 여행상품 기획 전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
2 자신이 직접 계획한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 후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자신만의 독특한 여행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학생들





Travel Maker

Mini Talk



김지오(3학년) 학생

매주 캠핑을 다닐 정도로 온 가족이 여행을 좋아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직접 세워서 상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이 매우 흥미로웠다. 1학년 때 참가했던 랜선 여행 영상 공모전은 신나는 추억이다. 각자가 보낸 여름 휴가 영상을 모아 1분 남짓한 영상으로 만들었다. 편집이 쉽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즐거운 과정이었다. 동아리 부장으로서 늘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이혜원(2학년) 학생

꿈이 항공승무원으로, 여행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다. 단체여행을 못 가더라도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모여 회의하고 동아리 활동을 기획할 때도 재밌다. 코로나19 때문에 1학년 때는 자주 모이는 것도 힘들어서 아쉬웠지만, 올해는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특히 동아리 친구들과 부산에 꼭 가보고 싶다.



주성연(2학년) 학생

내 첫 번째 동아리는 무조건 트레블 메이커다! 평소에도 여행 갈 때 계획담당을 주로 했기 때문에 여행상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동아리 활동이 매력적이었다. 친구들과 진짜 여행할 때가 가장 즐거웠는데 돌발 상황을 해결했을 때 뿌듯함은 계속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목표는 장애인을 위한 여행 상품계획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기획인데 좀 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발전시키고 싶다.



허우림(2학년) 학생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아쉬움이 커서 여행동아리를 선택하게 되었다. 부원들과 함께 지난해에 다녀온 강원도 힐링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큰 도시나 유명 여행지는 못 갔지만 사람도 많지 않고 공기도 좋아서 즐거웠다. 이번에 1학년과 함께 팀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국내에서 찾은 가성비 좋은 외국 여행 프로젝트'도 꼭 재밌게 다녀왔으면 좋겠다. 모두 파이팅!



윤예원(1학년) 학생

포스터를 보자마자 '정말 최고잖아!'라고 생각했다. 직접 다녀온 여행 사진이나 영상을 동아리 공식 SNS에 업로드하는 활동을 하면서 관광콘텐츠 기획 분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콘텐츠를 번역해서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 더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된다.



임석환
경북 영천 산자연중학교 교장

학교 밖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여정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의 고유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학교는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임석환 교장은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자이자 성직자다. 전국 최초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하고, 공교육 체계에서 새로운 대안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게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준 그를 만나봤다.

글_편집실

사과가 빨갛게 영그는 가을날, 사과 농장을 배경 삼아 산자연에 파묻힌 산자연중학교에서 만난 임 교장의 미소는 가을 하늘처럼 깊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작고 알록달록한 장난감에서 학생들을 향한 그의 배려가 보였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교장실에 들어섰을 때 이 장난감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같이 놉니다(웃음)."

임 교장은 1991년에 신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이 좋은 가을에 슈베르트도 좋고, 베토벤도 좋고, 괴테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국어·수학·영어냐"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한 학생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꿈꾸며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교직 이수를 했지만 곧바로 교육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임 교장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며 13년 동안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도했다. 결과는 좋았다. 그리고 다시 교육자로 돌아온 임 교장은 신부가 되던 해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학교 밖에서 아이 꿈을 키우다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분위기라 아이들의 주된 일이 입시를 위한 문제 풀이에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에 체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움이 책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마다 개성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다른데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해 병폐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개별화된 교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부터 임 교장은 학교에서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의 꿈을 학교 밖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회가 마련한 센터에서 만나 그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며 2012년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중학교 과정 위탁형 대안학교 '꿈못자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2015년에는 대구광역시 위탁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트리'와 교육부 위탁 가정 'Wee센터'를, 2016년에는 대구광역시 위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꿈'을 설립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힘든 아이들이었어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학교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이탈한 아이들 10명 중 8명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예요. 이런 아이들이 3만 명 정도 있다고 봐요. 이런 친구들을 이끌어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제가 만난 한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포기한 아이였죠. 중학교에 가서도 교실에서 우산을 펴고 엎드려있고, 라이터로 책을 태우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3개월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만나다 보니 변해서 지금은 대학 가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어요."

1 교명이 새겨진 바위 뒤로 밴드실과 녹색생태 콘서트장이 보인다.

2 임 교장은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개성을 살려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 임 교장이 교육 생애를 통틀어 가장 정성을 쏟은 활동이 자연 친화적인 체험 활동이다.

4 밴드부 아이들과 환하게 웃는 임 교장





"얘들아, 한계를 갖지 말려무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임 교장은 먼저 "뭐 해 먹을까?"라고 묻는다. 라면이든 빵이든 아이들과 같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상담모드'라는 게 있어서 상담할 때만 그런 척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은 삶으로 하는 거죠. 정성이 담긴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샌가 알아주고 달라져요. 믿고 기다려주면 마음이 열리죠."

임 교장은 대안교육이 "학교 밖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다.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한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란 아이들이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하게 해주는 거죠. 배움이 끝까지 이뤄지려면 아이들 자신이 배우고 싶어야 하고, 재밌어야죠."

그래서 임 교장이 교육 생애를 통틀어 가장 정성을 쏟은 활동이 자연 친화적인 체험 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 수확하거나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직접 장에 가서 팔게 했다. 학생들은 힘들지만 재밌어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개념들을 몸소 배우게 된다.

이러한 임 교장의 교육 철학들을 현실화한 학교가 2018년에 세워진 대구해올중고등학교다. 이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은 학생이 직접 교사와 함께 만든다. 교육과정이 자율적이다. 자신들이 만든 프로젝트와 여행을 통해 교육이 이뤄진다. 그리고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인턴십을 통한 배움), 경험학습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직업 현장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탐색해볼 수 있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꿈을 구체화하고 멘토도 만난다.





자연과 함께 올바로 성장하는 아이들

"NON SCHOLAE SED VITAE DISCIMVS(논 스콜라이 세드 위타이 디스키무스)."

우리는 학교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 배운다는 뜻으로 임 교장이 늘 마음에 담아둔 말이다.

"학생의 삶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거고 학교가 존재하는 거죠. 아이들의 다양한 품성과 성향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죠."

또한, 임 교장은 "결국 교육은 사람이 한다."라며 대안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대안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이라 24시간 학생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가 봉사 정신이 없으면 힘들다. 교사들의 수고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산자연중학교에 왔는데 여기는 생태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어요. 매년 몽골에서 나무를 심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3년 동안 못가다가 올해 1·2·3학년 전체가 함께 4박 5일 다녀왔죠. 이전에는 선배들한테 들은 정보가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선생님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아이들이 해외 여행가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몽골에서 3일 내내 땅 파고 나무만 심다 왔어요. 애들이 쓴 거라곤 목장갑뿐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노동이 사막화를 방지하고 자연을 살린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자연이 주는 지혜와 경험에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는 산자연중학교는 2022년에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됐으며 교육부에서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어려운 아이들과 10년을 보냈어요. 여전히 그 친구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할 거예요. 산자연중학교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생태환경에 관심을 두고 지구를 살리고 환경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내년부터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책임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느린 학습자를 위해 ‘교실(1수업 2교사)-학교 안(두드림학교)-학교 밖(학습종합클리닉센터)’으로 이어지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지원 방안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소개한다.

16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는 국가 책임제 실현
20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24 전문가 집단 한자리에 모여 위기학생 맞춤형 다중 지원
28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자료 여기에…



글 _ 김보현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는 국가 책임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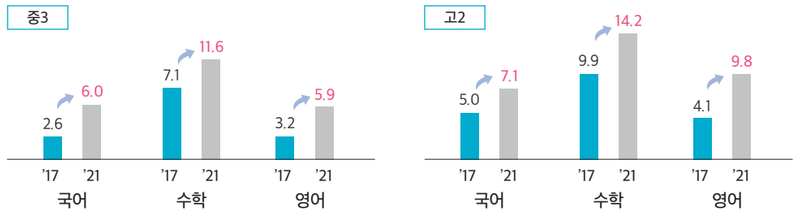
최근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초학력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의 의미를 넘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에 대한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학력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책무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2022년 3월 시행되었다. 법과 시행령에서는 기초학력의 기준, 기초학력 진단의 내용과 방법,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도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수준에서 기초학력에 대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의 증가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교육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 중3, 고2 학생의 3%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학생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적게는 2.1%p에서 많게는 5.7%p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적 결손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사·학부모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습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년 이상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1 - 2017년·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단위: %)



국가수준 기초학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부터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2025)'과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2027)'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지원-예방-기반 분야에서의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그림 2 - (예시)'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활용 방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결과 1수준 판정
↓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 실시
↓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정
↓
학습지원 이력 관리, 보정지도 및 향상도 판정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기초학력 진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도달여부 및 학습저해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단도구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충남대학교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업하여 개발·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초1~고1에서 초1~고2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2학년생들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올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기초학력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서, 희망하는 학교(급)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하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정서적 역량 및 학교생활 적응정도 등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향후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연계하여, 자율평가 결과 기초학력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한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진단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객관적·체계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또한,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선정 절차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선정은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선생님의 관찰,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학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림 3 -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절차(안)



촘촘한 기초학력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초학력 지원은 교실-학교 안-학교 밖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교실에서의 지원을 위해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교수·학습을 혁신한다. 학교에서 AI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대상 학생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하나의 수업에 2명의 교(강)사가 참여하는 1수업 2교(강)사제를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한다.

2단계,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교장 혹은 교감, 교과·담임·상담·특수·보건·영양교사로 구성되는 지원협의회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과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을 연계하여 학생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한다.

3단계, 학교 밖에서는 교실,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학교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힘든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결손 극복

코로나19에 따른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교과보충 수업과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활용한 튜터링과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탈북 학생, 시설보호아동,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체육·예술 분야 활동 학생, 읍·면·도서지역 거주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개별화 수업 지원, 기초학력 보정자료 제공, 주말 및 방과 후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부족의 원인은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이를 판단하고 지원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고려한 단계별 연수, 기초학력 업무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선생님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 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 전반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현장 구성원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의 진단 프로그램과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새롭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와 연계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글 _ 안광석 객원기자 사진 제공 _ 인천단봉초·대전 신탄진중학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1학년 담임을 처음 맡게 된 000 교사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 문제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그래도 곧잘 따라오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만 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수업에 관심을 잃게 되면 교실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도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 결국 아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닌 학급 전체의 수업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근 학교에서 운영 중인 1수업 2교사제가 그저 부럽기만 한 까닭이다.

1수업 2교사제, 모두를 위한 동행

“산만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도 협력교사가 이 학생을 전담해 차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지원을 병행해 주면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수업이 원만히 진행됩니다.”

인천단봉초등학교 고성근 교사는 1수업 2교사제가 느린 학습자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교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혜택이 일부 학생이 아닌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제공되기 때문이다.

1수업 2교사제는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에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협력수업을 통해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을 실현하는 제도다. 특히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해 학습부진의 조기 예방, 정서적 안정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수립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중요 제도 중 하나도 바로 핀란드의 중층적 학습안전망을 벤치마킹한 1수업 2교사제도다. 시범학교로 지정돼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단봉초는 어려운



1 2 3 인천단봉초등학교는 학부모를 협력교사로 채용하여 전 학년 전 학급에 1수업 2교사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건 속에서도 1수업 2교사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단봉초, 학부모를 협력교사로 채용

고 교사는 “단봉초가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협력교사 대부분이 우리 학교 학부모라는 점”이라며 “학부모가 협력교사로 참여하다 보니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남달랐다.”라고 강조한다.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필시험을 거쳐 협력교사를 채용하고 별도의 연수프로그램 운영과 수업 전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의 학습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학년 전 학급에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이 학교의 성적증감률은 제도 도입 후 국어 61.68%, 수학 75.2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조사에서 눈에 띄는 향상 효과를 나타냈다.

양질의 협력수업이 쉽지 않은 이유

그러나 단봉초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매 수업 시간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단봉초 역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낮은 협력교사의 급여 문제 때문이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낮은 시간당 급여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협력교사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만 채용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당 1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그 또한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이 같은 근무여건에서 양질의 수업효과를 기대한다는 건 애당초 무리일지 모른다. 담임교사와 협력교사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단봉초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이유도 결국 내 아이, 내 이웃의 아이라는 자세로 학생들을 대하는 학부모 협력교사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차이다.

수업 파트너 협력교사, 모두를 돕는 선생님

단봉초는 주당 14시간 중 2시간 이상은 교육이 아닌 협의와 행정업무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대상 학생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력교사를 단순한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려 들지 않고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학생들 역시 협력교사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있다. 아이들은 그저 모두를 돕는 선생님으로 인식할 따름이다. 특정 학생에게만 집중하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다른 학생들도 골고루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활동중심 수업의 경우 협력교사의 유무에 따라 수업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담임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다.

협력교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협력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협력교사는 수업 전에 담임선생님과 학습지원에 대해 협의하고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수업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살핀 후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 위주로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참여도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담임교사 입장에서도 혼자 수업할 때는 속도가 느려서 못 따라오거나 안 따라오는 학생들까지 수업 시간 중에 다 챙기기는 어려웠지만 협력교사가 맞춤형으로 개별 지도해주니 수업 시간 중에 모든 학생이 과제를 해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두드림학교, 학교단위 통합적 지원 가능

1수업 2교사제가 학급 내에서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라면 두드림학교는 학습장애와 정서행동 어려움, 돌봄 결여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학교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이다. 교과(국·영·수)에 대한 방과 후 교육, 친구멘토링, 특기·적성 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 신탄진중학교 이은정 교사는 “만들어진 틀에 아이를 넣지 않고 아이의 부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3단계 선별과정을 통해 아이에게 최적화된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신탄진중, 3단계 선별과정 통해 맞춤교육 실현

두드림학교는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야 하는 만큼 아이들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탄진중은 일차적으로 3월 중 진단고사를 실시하여 30~40명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폭넓게 선별한다.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 시험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무엇보다 극소수만 선발했을 때보다 폭넓게 대상을 선발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심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겐 국·영·수 교과 교사는 물론 외부 교사도 별도로 초빙해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보충수업보다는 아이들의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대덕구 보건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센터의 도움도 받고 있다.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되어야 보충수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안정으로 수업효과 극대화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선발된 아이들 중 상당수는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의 멘토링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어서다. 멘토링보다는 특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경우다. 집중적인 상담과 일대일 맞춤수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학습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교사는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국·영·수 과목의 경우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활용과 학생의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학습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으로 학생에게 제시된 학습 내용 및 과제 이행에 대한 확인과 점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인다.

방학 중에도 일주일에 2회씩 개인별 학습 과제를 진행하고 주기적 학습 보고 및 완료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학습강화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해서다. 학생들이 해당 교육과정을 적절히 이수하고 있는지 진단 및 확인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정서 안정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트 컬러링’ 수업을 통해 불안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는 창의력 수업, 교구를 이용한 체험형 수학원리 학습,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문 쓰기 등 특기와 적성을 지원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또 자율적 학습멘토링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특기 계발 및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한편, 사제동행 체험활동,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는 과정도 병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정기고사 성적 향상은 물론 수업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66
> 만들어진 틀에 아이를 넣지 않고
> 아이의 부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99




45 신탄진중학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폭넓게 선발하여 교과(국·영·수)에 대한 방과 후 교육, 친구멘토링, 특기·적성 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가 집단 한자리에 모여 위기학생 맞춤형 다중 지원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1단계 교실, 2단계 학교 안, 3단계 학교 밖) 중 3단계 학교 밖 학습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정서·학습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전문가 상담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공통·반복되는 업무를 이관해 전담하면서 학교업무경감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다.



1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기관에서 상담 중인 복합요인 위기학생의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등교거부, 수업거부 등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에요. 제가 두 번 정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해당 학생과 관계가 좋았던 외사촌이 ○○○발달센터에서 이미 치료받고 있어서 그쪽 기관과 연계하면 이 학생이 잘 다닐 것 같아 연계했는데, 곧 저희가 지원하는 10회 치료가 끝나요. 치료 효과를 보면, 최근에는 학교에도 잘 가고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원래 안 먹던 급식도 가끔씩 먹으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치료가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고 더 지원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어요. 올해 저희가 이 학생에게 충분히 지원하기도 했고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랑Wee센터 정이슬 전문상담사가 첫 번째로 상담사례를 발표하자 "이 학생의 경우 학습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연이어 학교통합지원센터 이자경 장학사가 질문을 던진다.

"해당 학생이 경계선 지능에 속하긴 하거든요."

"경계선 지능을 연계하면 인지치료를 진행하는데 그걸 원하는 걸까요?"

"학생이 지금 모래놀이치료를 받고 있는데 학교와 학부모님은 그걸 지속하길 원해요."

"그럼 ○○○발달센터와 이야기를 해서 이 학생을 경계선 지능으로 연결하고 주 2회 중 1회차는 인지치료, 2회차는 모래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10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동부분관 5층에서 '복합요인 위기지원 통합사례협의회'가 열렸다. 학교통합지원센터 박중재 센터장을 필두로 교육협력복지과 교육복지조정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동부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연구원, 중랑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기관에서 상담 중인 복합요인 위기학생의 사례를 공유하고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합사례협의회'는 다중지원을 위한 협의체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청 내 유관부서 전문가들이 모여 학생의 복합요인 원인을 파악·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심리·정서·학습·치료·복지 등 다방면의 입체적인 맞춤형 통합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박 센터장은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외부 기관 프로그램 중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외부 전문기관과 학생을 연계해주거나 관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한다.

복합요인 위기학생 위한 전문적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 3월부터 11개 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역밀착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속도가 늦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결손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복합요인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먼저, 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사업이 있다. 복합요인 진단 및 학생 맞춤형 학습상담, 1:1 개별맞춤상담, 특수요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 전문상담, 치료기관 연계, AI 활용 한글 미해득 다문화학생 기초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생 맞춤형 학습상담 안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상담', '한글·기초수학·학습전략 모둠상담', '방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1 개별맞춤상담의

경우 '정서·심리상담', '읽기 이해', '한국어교육' 등을, 특수요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 전문상담에는 '난독', '경계선 지능', '심리·정서' 등으로 구분해서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행동분석가, 감각통합분석가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담당 교사연수, 느린 학습자 인지훈련 프로그램, 그림책 활용 문해력 교육 연수, ADHD 학생 지도법 컨설팅, 복합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코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센터장은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학교 현장에서 위기학생 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아 내년에도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연계한 사업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학부모 학습상담'과 '학부모 아카데미'가 진행 중이다. '학부모 학습상담'과 '학부모 아카데미'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난독, 경계선 지능아이 문해력 높이기, ADHD 자녀 코칭, 우울·불안이 높은 자녀와의 소통, 사춘기 자녀와 관계형성, 학교폭력 궁금증 등을 주제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코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습도움센터에서 '자신감' 생겼어요!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동부학습도움센터는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명칭, 기능, 소속은 조금씩 다르지만, 150여 곳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4~7월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동부학습도움센터를 찾은 학생은 초등학생 83명,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1명 등 총 66교 110명이었다. 2학기 현재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은 50교 91명이고, 58교 84명의 학생들에 대해선 특수요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진단하고 전문상담과 치료기관 연계를 진행했다.



2 교육지원청 내 동부학습지원센터 내부


3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이 학습하고 있다.

양정임 장학사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경우 95.6%, 학생의 경우 85.7%가 학습상담과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응답에서는 '자녀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자녀의 학습이 많이 향상되었다', '학습지도방법을 코칭해줘서 고맙다' 등이 주를 이뤘고, 학생은 '공부를 게임같이 해서 좋았다', '공부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자주 칭찬해주셔서 행복했다'라는 소감이 많았다."라면서 실제로 기초학력 사전-사후 검사결과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9.3% 향상됐으며 지난해 대비 학습상담 신청인원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다. 관내에 이주배경이 다양한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면서 한글미해득 학생들이 학습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한글미해득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기초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도 시작했다. 올해 9월 21일~12월 12일까지 다문화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활용 기초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은 AI교사가 학생의 음성과 필기를 인식해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결과를 분석한 뒤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문학습상담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오류교정이나 학습코칭 등 1:1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또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분석해 영역별 성취도, 향상도 등의 결과보고서를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학생 증가, 추가 인력·예산 필요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4년 차에 접어들었다. 도움이 절실한 위기학생에 대한 정교한 진단과 치료·학습·복지지원까지 센터의 긍정적인 기능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기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력은 비례하여 충원되지 못한 실정이다.

박 센터장은 "현재 동부학습도움센터 업무총괄팀장은 파견교사이다. 거기에 학습도움지원사 2명 역시 단기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하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나 업무의 지속성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기초학력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추가 인력배치와 안정적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림 1 - 동부학습도움센터 위기학생 다중 지원 절차

지원 요청
- 학교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 요청
- 학습도움센터, Wee센터 심화 사례 회의 요청

↓

사례 확인 및 지원 준비
- 위기사안 확인 및 원인 분석
- 가정형편, 학교생활 등 학생현황 확인 (가정 및 학교 협조)
- 사례 개념화

↓

통합사례협의회 개최
- 사례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 결정
-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연계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
- 맞춤형 솔루션에 따른 지원
- 지속적인 사후 관리

글 _ 편집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자료 여기에…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느린 학습자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진단이 필요하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학력 진단 및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곳을 소개한다.



기초학력 진단 및 교수·학습 제공 사이트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에 도입됐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서버에 탑재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시스템에 학생을 등록하여 1년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는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단도구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자료,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과목별, 학년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학습부진 학생 관리와 지도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기초학력의 부족은 심리·정서·지능·사회성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학생들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학습준비도 검사(사회·정서역량 검사, 학습역량 검사, 학습유형 검사,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 정서행동환경검사, 자기조절 학습 검사 등)를 이용하여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서·심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충남대학교의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학년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읽기를 진단할 수 있으며,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교과별, 학습 요소별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다. 배·이·스·캠프에는 학습요소 1,367개, 문항 33,305개, 동영상 661강이 탑재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교수·학습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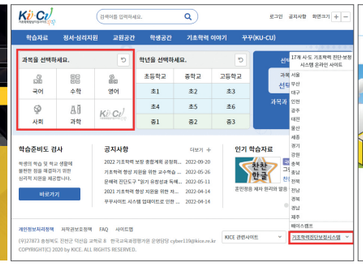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체계 구축, 적응형 진단 실행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교수·학습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 배·이·스·캠프, 시도교육청 자료 등 연계 사이트의 사용자 계정을 통합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습이력을 제공하는 학습관리체계를 국가포털 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 및 대상자 선정 시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해 왔던 점, 경계선 지능, 읽기 장애 등 학습저해 요인을 진단하는 도구가 부족하여 심층적인 진단이 어려웠던 점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대상자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수준·능력에 따른 적응형 진단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현재 초1~고1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2024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며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



충남대학교의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2023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방안

평생교육 시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학자금대출 지원

글_ 윤은정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사무관

걸그룹 EXID 하니와 치즈인더트랩의 배우 박해진. 둘 사이의 공통점은? 정답은 바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한 연예인이라는 점! 지난해 EXID 하니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심리학 전공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혀서 대중의 응원을 받았으며, 배우 박해진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으로 유명해져서 학점은행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이제 학점은행제는 바쁜 직업·경제활동 속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평생학습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세'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역시 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학습비가 평생학습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94만 명… 양적 성장 거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94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매년 등록하는 학습자 수는 과거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연평균 3만 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8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는 매년 1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직업훈련, 자기 계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평생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은 확대되고, 확대된 역량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은 되었지만, 소득에 따라 평생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림 1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현황('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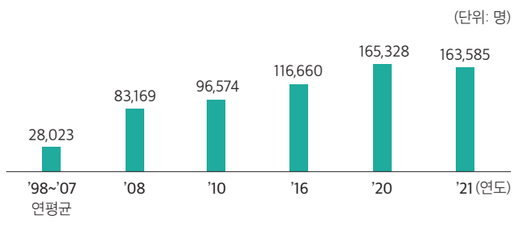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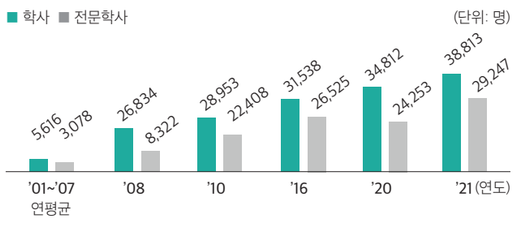


그림 2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규모('01~'21)



출석 기반 학점은행제, 전문대 등록금과 비슷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사회적 경로 조사'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20%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비용'을 꼽았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들은 학부생과 동일하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는 학습비가 대학에 비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원격교육시설은 1인당 학습비가 연평균 77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낮은 편이나, 출석기반시설의 경우 직업훈련원 533만 원, 평생교육시설 439만 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28만 원으로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 600만 원에 육박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출석 기반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표 1 - 학점은행제 기관별 1인당 연간 평균 학습비 (단위: 천 원)

구분	'21.1학기	'21.2학기	연간 합계
전체 평균	600	638	1,238
기술계 학원	3,012	2,586	5,599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1,609	1,668	3,277
인정직업훈련원	2,659	2,669	5,328
평생교육시설	2,235	2,151	4,386
원격교육	380	388	768

표 2 - 학위취득 과정의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응답

구분	응답자 답변 내용
어려운 점	일과 학습병행(42%) > 학습 상담(27%) > 행정 불편(25%) > 정보 부족(24%) > **경제적 비용(20%)**
제도개선	행정 간소화(17%) > 교육의 질(11%) > 학습지원(9%) > **학위취득 비용(9%)**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재까지는 평생교육·훈련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웠다. 해외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유사한 조건으로 평생교육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황이었으나 우리나라는 그간 고등교육의 형태로 학점은행제를 바라보지 못했던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학점은행제 협의회는 일부 시중은행과 손을 잡고 신용대출의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직장인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로 인해 학습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법적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올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학점은행제 협의회 담당자와 학습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한국형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었다.

일·학습 병행하는 학습자의 특성 고려한 기준 마련

한국형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크게 2가지 특성을 가진다. 먼저 기존 학부생과 차별되는 맞춤형 제도 설계다. 학부생의 경우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C학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유지하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대출을 지원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4천만 원 한도와 성적 기준은 유지하지만, 이수학점 적용은 예외로 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이자만 내도록 하는 거치기간은 학부생의 10년보다 짧은 8년을 적용하지만, 학년 차등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생활 병행에 따라 학습 기간이 길어져도 상환 부담이 높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맞춤형 설계'와 함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재정건전성 및 사업 운영 적정 여부 평가를 통한 기관 선정에 있다. 지난해의 경우 429개 기관에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0여 개 기관은 지난해 1·2학기 평균 학습자 수가 100여 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50여 개 기관은 100~200명 규모로 기관당 학습자 수가 많지 않았다. 학습자가 자신이 선택한 평생학습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스스로 재정여건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이 시스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변칙적 운영을 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항목별로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 선정에서 제외하여 사후 운영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림 3 -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기관 선정 단계

1단계	•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서 대상 기관의 재정건전성 및 기본사항 평가
2단계	• 교육훈련기관 신용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1단계 부적격 기관(재단 선정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이 산출되지 않거나 C미만인 경우) 표준재무제표 등을 통해 별도(부채비율 등) 심사
3단계	• 학자금대출 사업 위반사항 등에 따른 대출 지원기관 결격 여부 확인

내년 1학기부터 지원, 평생교육·훈련 활성화 기대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타난 경력변화 조사결과는 학점은행제가 활성화되고 평생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와 학점은행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습하기 전 직장이 없던 집단은 학위취득 이후 절반 정도가 학업 및 고용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65%가 취업, 38.4%가 대학편입 및 대학원 진학을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장이 있던 집단도 38.6%가 학업 및 고용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이직 34%, 상급학교 진학 27%, 임금상승 및 승진 25%, 직무이동 18% 등의 비율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훈련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제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걸음마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13일 2023년 도입방안이 발표되었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제도 시행 단계에서는 그 무엇보다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생 학자금대출처럼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평생교육·훈련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



학교 기후·환경교육 한자리에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기후·환경교육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포털사이트(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를 개통하였습니다. 교원, 전문가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맞춤형 자료들과 다양한 프로그램(활동지, 지도안 등)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적 돌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이 화제다. 지난해 3월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명서초등학교 별관 건물을 28억 원을 들여 새단장하고 늘봄 1호, '늘봄 명서'를 개원했다. 인근 11개 학교가 함께 모여서 돌봄 공동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보다 연장된 돌봄 시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 확대, 정기 이용자 외 틈새돌봄, 돌봄교실 내 무상 단체프로그램,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는 심리상담 지원 등 더욱 촘촘해지고 새로워진 공적 돌봄 '늘봄'을 만나본다.

글·사진 _ 편집실









학생들은 '늘봄'에 머무는 동안 쉼과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역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사진은 '늘봄 명서' 전경과 방과 후·단체 프로그램 활동 모습

11개 학교 통합해 저녁돌봄과 틈새돌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늘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이다. 돌봄 수요는 많은 데 반해 학교 내 돌봄교실이 늘어나지 않자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거점돌봄센터를 만든 것이다.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적인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늘봄 명서' 배인숙 장학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통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해서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늘봄 명서는 돌봄교실 6개, 방과후교실 8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가능한 놀이실 4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이뤄지는 돌봄이다 보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운영 초반임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늘봄 명서'에는 명서초를 포함해 명도초, 명곡초, 상북초, 도계초, 중동초, 의창초, 소답초, 유목초, 대원초, 평산초 등 인근 11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첫해에는 110명이,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40여 명이 신청해 참여 중이다. 이 중 저녁 8시까지 남아있는 저녁돌봄을 신청한 학생 수가 23명이고 토요돌봄도 1명이 있다.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출·퇴근 시간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도 제공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 23개·단체 프로그램 5개… 뜨거운 요청에 '늘봄 2호'도 개원

학생들이 '늘봄'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쉼과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역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실험, 방송댄스, 창의블록, 애니메이션, 요리, 음악줄넘기, 클레이 등 23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미술, 음악, 신체놀이 등 5개의 돌봄 단체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돌봄 단체프로그램은 전액 무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프로그램당 2~4만 원가량을 부담한다. '늘봄 명서'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650여 명이나 될 만큼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올해 9월 개원한 늘봄 2호 '늘봄 상남'은 창원상남초등학교 외 창원신월초, 웅남초, 사파초, 토월초, 외동초, 동산초, 남양초, 용지초, 용호초, 남정초 등 11개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돌봄교실에는 43명, 방과후학교에는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늘봄 센터로 이동할 때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등원 통학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청에서 4대의 셔틀버스를 임대해 학년별 하교 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또 돌봄교실에 오는 학생들에게는 간식을 제공하고 저녁돌봄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저녁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상북초 김노아(3학년) 학생은 "방과후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교실을 친구들과 할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다."라면서 '늘봄'에 오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또 저녁

돌봄을 하는 의창초 이시예(1학년) 학생은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혼자 남아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늘봄 명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배인숙 장학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98.5%에 달할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쉼과 배움이 있는 돌봄, 추가 개원 요구 잇따라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연간 1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늘봄 명서’에 17명, ‘늘봄 상남’에 16명의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했다. 교육청 장학사도 파견해서 프로그램 기획, 인력관리, 운영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물론 학교폭력 사안, 학생심리상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이 필수적이다. 또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없어 학교에 별도로 수익자 부담금을 요청해야 하고, 교내 급식실을 사용할 수 없어 급식의 질과 안전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수준 높은 교육활동, 수시·틈새돌봄 제공, 통학 차량 지원, 등원 안심알리미 무료 제공, 대상 학년 확대, 이용 시간 확대 등 ‘늘봄’의 장점은 무척이나 많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남지역 내 또 다른 ‘늘봄’을 개원해달라는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내년 9월 김해시에 ‘늘봄 3호’를 개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늘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



올해 9월 개원한 ‘늘봄 상남’은 인근 11개 학교 학생이 이용하며,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에는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DUCATION NEWS

vol.484
NOV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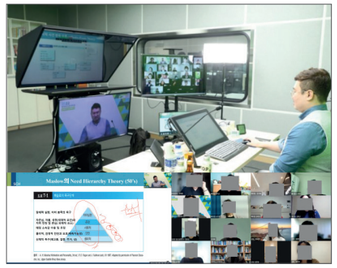


NEWS 01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방향 제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출범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국교위는 앞으로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맡게 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이배용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가발전계획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NEWS 02 첨단 분야는 국내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학사학위 취득 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첨단 분야 전공은 국내대학에서 100% 온라인으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사과정만 가능했고, 국내대학의 경우 석사과정만 교육부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에서 교육혁신을 더욱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학사학위는 국내대학 단독·공동으로 운영 가능토록 근거 훈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으로 운영할 수 있는 21개 첨단 분야 학사과정은 대학 현장에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상반기에 별도 심사 후 2024학년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2월 신설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다. 2022년 2월 6개 대학, 7개 과정이 1차로 승인된 바 있다.

NEWS 03

신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캠프' 겨울방학에 만나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학교·대학·민간(공공기관, 기업)이 개설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학교·대학·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정규교과와 연계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체험 활동 중심의 절차적 문제해결과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및 코딩 실습 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을 제공한다. 캠프 운영과정에는 정보교사 등 현직교원들과 교·사대 예비교원이 강사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 캠프는 올해 12월 겨울방학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된다.

NEWS 04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는 10월 31일부터 시작되는 모집 유형별로 희망하는 유치원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바일 서비스 시간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처음학교로 챗봇)' 서비스와 연계해 사용자가 요청한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도 제공한다.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학부모는 서비스 시기별 정보와 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처음학교로' 누리집과 누리소통망(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 05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대면·비대면 개최

교육부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10월 15일 비대면 실시간 경기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6주간에 걸쳐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를 위해 팀 활동 중심의 종목별 경기를 선호하는 학생을 위한 대면 종목과 학생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위주의 비대면 종목을 병행 운영한다.

대면 경기는 학생들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16개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도별로 시합을 거쳐 선발된 학교(팀)가 참여한다. 10월 15일에 진행된 실시간 비대면 경기에는 도별 예선에 참여한 1만 9,594명의 학생 중 종목별·학교급별 시도 대표로 선발된 162명(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FOCUS 01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날개를 달다!"

글 _ 구영목 명예기자

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학부모모임(회장 이경희)은 부산시교육청의 후원으로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제11회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및 글짓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가관 및 호국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 부산지역 304개 초등학생 1천여 명과 학부모 600여 명이 참가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대회가 개최됐는데, 올해는 대면으로 대회를 진행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태극기에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였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발전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함께할 자랑스러운 우리의 얼굴이다. 태극기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학생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장 곳곳에서는 태극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짓는 학생들로 가득했으며, 평소 생각하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센텀초 이나영(4학년) 학생은 "평소에 태극기를 그려보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니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회장은 "이 대회는 태극기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행사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대회가 아쉬워서 2017년도부터는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 연제구에서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해 '연제구 나라 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른 구에도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나라 사랑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 창의력을 한껏 발휘해보는 자리인 만큼 이러한 좋은 취지의 행사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







FOCUS 02

나의 진로↑ 글로벌 탐구 미래삶(글탐삶) 출발!

글 _ 곽우은 명예기자

글탐삶의 출발! 멘티-멘토 결연식

5월, 대구 창의융합교육원 강의실은 글로벌 탐구 미래삶에 참가하는 학생 35명과 멘토 및 운영 선생님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5월 결연식을 시작으로 9월 최종발표회까지 글탐삶 활동이 이어졌다. 글탐삶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경험함은 물론, 자기주도적 진로 비전 수립, 도전 의식 고취,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사회역량을 기르게 된다. 학생들의 진로 분야에 따라 1명의 멘토 교사와 4~5명의 멘티 학생들로 결연하였다. 학생 희망진로 분야를 살펴보면 의약, 인문, 예술, 컴퓨터(IT), 정치, 교육, 공학, 동물 등 8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멘토 선생님은 멘티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탐색을 도와주었다. 팀별로 만나면서 팀 이름과 구호를 정하고 MBTI 검사를 하며 개인 성향을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분야와 연관된 싱가포르 탐방지를 조사하면서 팀별 코스를 스스로 짜보았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에서 현지인과 사진찍기, 현지음식 먹어보기라는 미션을 정하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자연과 생태, 정치, 경제, 역사와 문화를 미리 공부했다. 또 팀별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설계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의사, 장교 등 각자 희망하는 진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강의를 듣고, 대학에 진학한 선배를 만나 공부법, 대학 준비방법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멘티 학생들은 멘토 선생님과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설계해 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해외 입국도 자기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입국카드 작성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을 보였다.

2단계 두근두근 싱가포르 해외 탐방

7월 17일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싱가포르 코트라(KOTRA)였다. KOTRA 장상해 관장은 학생들에게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금융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글로벌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난양대로 이동하였다. 난양대에서 교수님들의 특강과 에너지, 반도체, 인체공학 관련 연구실 견학, 난양대 한국 유학생들과 진로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특강, 탐방, 멘토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남준 교수의 꽃가루가 플라스틱이 되는 연구특강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 교수의 한국 학생들을 향한 열정은 싱가포르의 온도만큼이나 뜨거웠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도 혁신을 통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민호건 교수의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창업특강도 열정적이었다.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응원해 주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난양대 한국 유학생들이 학생들과 해외 유학, 진로, 해외 대학생활, 공부법 등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전체일정 후에는 팀별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구글지도를 보면서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한 방문지의 정보를 서로 나누며 역사, 문화, 생태,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을 탐방하였다. 국립박물관,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배운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 시티갤러리와 차이나타운, 아랍거리, 리틀인디아를 통해 느낀 다문화와 도시계획, 가든스바이더베이,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을 통해 경험한 싱가포르의 강점인 자연생태와 예술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5박 7일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으며, 진로 설계에 대한 큰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다.

3단계 글로벌 역량개발 나눔 및 공유 보고회

싱가포르 귀국 이후 학생들은 팀별로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별로 모여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진로에 적용해 보면서 함께 배운 가치들을 정리해 보았다. 학생들은 발상의 전환, 도전정신, 열린 마음, 넓은 시야, 진로에 대한 설계와 가치관 형성, 글로벌 역량, 소통, 꿈, 공동체, 팀워크, 조화 등 다양한 배움을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9월 8일 대구교육청 대강당에서 5개월간 글탐삶 대장정의 마지막 활동인 몸으로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의 얼굴에서 진로에 대한 도전과 열정,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대안교육 25년, 다시 '삶을 위한 인생학교'를 꿈꾸며

글 _ 여태전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삶이 곧 교육이고, 생활이 곧 교육이다."



학생들은 왜 학교를 떠나려 하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업증명 학생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수는 4만 2,755명이다. 2019년 5만 2,261명이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만 2,027명으로 줄었는데 2021년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고등학생 2만 131명이 학교를 떠났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중 거의 절반인 47.1%가 고등학생이다. 이들의 자퇴 사유는 '기타'가 1만 2,3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응(학업, 대인관계 등)이 4,397명, 해외출국 1,814명, 질병 1,081명 순이었다.

학업중단 사유 중 왜 '기타'가 이렇게 높을까? 다수의 자퇴 학생이 학교 안의 내신성적 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입시대열에 줄을 선다는 점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다만 달라진 분위기는 이제 자퇴생들도 당당하게 친구들과 파티를 열며 학교를 떠난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자퇴 브이로그'에 올리는 게 요즘 인기를 끈다고 한다. 일부 자퇴 브이로그는 조회 수가 500만 회가 넘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자퇴'라는 키워드의 일일 조회 수가 적게는 10만 회, 많게는 40만 회라고 한다. 몸은 학교 안에 있어도 마음은 학교 밖을 떠도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다.

왜 학생들은 이렇듯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가? 문득 2015년에 어느 여고 2학년 학생이 자퇴를 선언하고 1인 시위를 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 그 학생은 "경쟁만 남은 배움 없는 학교에 있을 수 없어 나는 학교를 그만둔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굳히면서 창의적 인재를 운운하는 학교와 국가의 모순을 고발한다."라고 했다.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가에 대한 답변은 28년 전 1994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교실 이데아'란 노래 가사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됐어(됐어), 됐어(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중략)-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서태지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다.

더 큰 비극과 불행은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다. 성적 비관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86년 1월 어느 여중생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는 아직도 우리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벌써 36년 전의 일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유서를 되새김질하며 우리 교육의 현실을 한탄해야만 하는가?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나라 교육의 비전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단 말인가?

입시를 위한 학교, 삶을 위한 대안학교

도대체 한국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다음과 같은 진단에 깊이 공감한다.

"기업에서 학벌 위주로 뽑는 데다, 패자부활전이 없다. 대학 졸업 때 좋은 직장 못 가면 평생 못 간다. 그게 학교의 입시위주 공부 환경을 만들고, 근시안적인 인간을 만든다. 일류대학의 이기주의도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문제나 학생들의 건강과 장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똑똑하고 돈 많은 집 학생들을 뽑겠다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조하고 조장한다. 대학, 기업, 정부 3자의 공동작품이 한국의 입시지옥이다."(2010.11.15. 한겨레)

그렇다. 한국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입시지옥'에 있다. 그러니 학벌사회 구조와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 속에 갇힌 한국 교육은 끝없이 탐욕을 부추기는 '승자독식 사회의 과잉경쟁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도 선생님도 다니고 싶은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며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배우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학교, 인생학교는 그 어디 없을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안교육 운동'은 바로 위와 같은 질문과 성찰적 사유에서 출발했다.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 길은 없는가?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은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낫 한 자루로도 숲속에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 하나로도 큰 방을 밝힐 수 있다."

간디학교 설립자 양희규 선생이 1997년에 발간한 책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에 담긴 성찰적 메시지다. 언제까지 세상 탓, 정부 탓만 하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하여 '낫 한 자루'와 '촛불 하나'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내며 희망을 노래한 것이다.

그때 이후 25년이 흘렀다. 대안교육 25년을 회고하면 참으로 많은 회한이 떠오른다. 기쁨과 슬픔, 고통과 환희, 감동과 절망이 하나로 어우러져 '오늘,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평소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3% 소금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외쳐왔다. 그래서 18년 동안의 일반학교 생활을 청산하고 산청 간디학교에서 대안학교 교사로서 거듭났다. 이후 창원 태봉고등학교에서 공립 대안학교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았다. 나아가 지난 8년간은 남해 상주중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비전을 걸고 '남해금산 교육마을'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지난 16년간 대안교육 현장에서 '삶을 위한 대안학교' 만들기에 온 열정을 바쳤다.

다시, 꿈과 사랑으로 함께 여는 인생학교

2022년 4월 현재 인가받은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모두 94개교다. 즉 대안학교(각종학교)가 50개교(공립 22/사립 28),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19개교(공립 5/사립 14),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가 25개교(공립 5/사립 20)다. 결론적으로 공립이 32개교, 사립이 62개교다. 인가받지 않은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지만 적게는 400여 개교, 많게는 600여 개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안교육기관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비(미)인가 대안학교들도 '등록' 절차를 거쳐 하나둘 합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학생 중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약 1% 남짓이다. 아직도 2%가 부족하다. 그래서 목이 타고 속이 탄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공교육의 혁신으로 대안학교 학생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대안학교의 위기론이 분분하다. 하지만 위기가 또 다른 기회임이 분명하다. 아직도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은 철옹성처럼 공고하고 학생들은 오늘도 '자퇴 브이로그'를 접속하며 학교를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간디학교 교가 가사다. 그렇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다. 결국 오늘도 대안을 찾으며 우리가 걷는 길은 '꿈과 사랑의 길'이다. 이 길은 어쩌면 처음부터 '없는 길', '낯선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꿈과 사랑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은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이다.

누군가가 왜 당신은 일반학교를 버리고 떠나와 대안학교에 뛰어들었냐고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꿈꾸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꿈과 사랑의 깃발을 흔들며 행복학교, 삶의 학교, 미래학교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그게 곧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한 인생학교'라고 말한다.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빛의 파장만큼이나 삶은 다양하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교육에도 정답이 없다. 다만 함께 손잡고 삶을 배워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만인에게 만인의 삶이 있듯이, 대안교육은 만인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삶이 곧 교육이고, 생활이 곧 교육이다.

대안교육을 꿈꾸는 사람은 진보교육 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 대안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다시 꿈과 사랑으로 함께 여는 '삶을 위한 인생학교'를 상상한다. 마을과 학교가 구분 없고, 주민과 학생이 구분 없고, 교사와 학생이 구분 없고, 수업과 삶이 구분 없는 '남해금산 교육마을'의 '보물섬인생학교'를 꿈꾸고 있다.



스포츠심리상담사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케이스포츠심리상담센터
김미선 대표

운동선수들에겐 신체적인 요소는 물론 심리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 스포츠의 세계에서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새롭게 부상하는 이유다.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스포츠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발전시키고 강화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3년 동안 겪은 선수 생활의 힘든 역경을 사과 상자 8개 분량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다는, 케이스포츠심리상담센터 김미선 대표로부터 스포츠심리상담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_편집실

스포츠심리상담은 선수 개별적인 1:1 상담, 팀별 상담, 유소년부터 국가대표, 프로선수까지 그 대상과 연령층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선수에서 지도자로까지 그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도자 상담과 연계한 선수의 상담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케이스포츠심리상담센터 김미선 대표는 올해로 13년 차인 스포츠심리상담사다.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제1 자격요건은 “선수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라고 말하는 김미선 대표. 운동선수 출신의 선배로서 선수들이 덜 힘들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심리상담이 필요한 곳이라면 늘 어디든지 달려간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 대표. 최근 이를 위해 케이스포츠심리상담센터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야구부의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미선 대표와의 일문일답.

먼저, 스포츠심리상담사로서의 요즘 근황은?

이번 주엔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기초 종목 선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900명에 대한 상담 교육을 수행했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교육이 이뤄지기에 무척 바쁘게 한 주를 보냈다. 또 서울시체육회 인권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 여기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업무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스포츠 활동에는 체력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 부여, 불안과 슬럼프·트라우마 등 안 좋은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등 심리적인 영역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꾸준히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농구선수로 활동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또래보다 장신



>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타인을 만나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유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라는 요소가 장점이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 선수 생활 내내 열등감을 가졌다. 경쟁에서 늘 지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그때 스스로를 다독이며 썼던 일기장이 8개의 사과 상자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고, 환기해줄 마땅한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하고 스포츠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외국의 선수들은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 나가면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동행한다는 거다. '아, 스포츠심리학 영역에서 이런 직업도 존재하는구나!' 나의 선수 시절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후배들에게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되어 '희망'을 전파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생겼다. 애초에 전공하려던 스포츠의학에서 스포츠심리학으로 마음을 바꾼 계기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는 대학에서 스포츠심리학 강의도 맡는 등 현재로서는 이 분야를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스포츠심리상담사로 일하는 매력은? 그리고 보람을 느낄 때는?

이 일을 하다 보면, 선수의 목표와 꿈이 나의 목표와 꿈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무엇보다 큰 보람과 이 일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 치러진 대회라 선수가 경기할 때 관중석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 신체적 한계로 슬럼프를 겪었지만, 나와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선수가 마침내 온전한 자신감과 기량을 되찾은 사례다. 마침내 올림픽 무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프로선수도 스포츠심리상담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학교폭력과 관련, 오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선수도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그해 최고의 신인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

스포츠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때는 '내 편'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어제(10월 13일) 끝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낸 상담 사례자의 학부모들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함께 힘들었던 과정을 공유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는 것이다.

스포츠심리상담 영역 외에도 일반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분야도 공부했는데.

만약 아이가 아프다면, 부모는 그 무엇이든 하게 된다. 스포츠심리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일반심리상담이나 미술심리상담 공부는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서 하게 됐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선수와의 상담 과정에서 그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이 바로 미술치료다. 스포츠심리상담 시 미술심리상담 기법을 병행하곤 하는 이유다.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한다면.

청소년이라면 일반 학생이나 선수 모두 우선 열심히 운동하면서 스포츠 환경의 한계를 경험해 보라고 하고 싶다. 나의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은 힘듦을 인내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나는 왜 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라며 자책하는 순간이 유독 많았다. '어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면서 신을 원망하곤 했다. 하지만 이젠 알 수 있다. 학창시절 그와 같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왔기에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선수들에게는 또 현재 겪는 모든 힘든 과정, 그것이 곧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타인을 만나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유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스포츠심리상담사로의 진로를 원한다면, 이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인으로서의 스포츠심리상담사에 대한 미래전망은?

스포츠심리상담 영역은 이제 운동선수, 지도자, 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넘어 일반인들도 관심을 두는 단계다. 최근 들어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좀 더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와 경향이 늘어나면서다. 또 요즘은 기업에서도 운동선수의 승부 세계에 관심을 두는 곳이 많아지면서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초청 강의도 늘어나고 있다.



선수들의 꿈이 이뤄질 때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미선 대표

스포츠심리상담사로서 꿈꾸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먼저, 스포츠심리상담사 후배들에게 전문 상담사로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슈퍼바이저로 활동하면서 만난 후배 중에는 학생선수 시절 나에게 직접 상담을 받았던 사람도 있다. 그때의 좋았던 기억으로 이 일을 꿈꾸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상담센터의 공간을 좀 더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상담하면서 겪는 선수들과의 이런저런 사연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TIP BOX |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되려면...**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스포츠심리이론, 스포츠심리측정, 스포츠심리상담론, 운동심리상담, 응용스포츠심리상담, 스포츠심리기술훈련, 팀상담, 재활·운동중단·은퇴 상담, 운동학습론 등이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자격증은 1~3급으로 구분되는데, 현장에서 정식 스포츠심리상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급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1급의 경우 총 200시간 이상, 2급은 140시간 이상의 현장수련 활동이 필수 자격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초·중등부 학생선수부터 실업팀, 프로선수로까지 상담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심리학 석·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즐거운 스포츠와 만나요!

스포츠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스포츠와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주목해보자. 스포츠를 주제로 전시 관람,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부터 최신 기술을 통해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까지 다양하다. 스포츠를 다채롭게 즐기며 내 꿈에 좀 더 다가가 보자.

글 _ 편집실 **사진 제공** _ 대한축구협회/국민체육진흥공단

풋볼 팬타지움

“축구 테마파크로 놀러 오세요”

풋볼 팬타지움은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축구 박물관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 건립한 2002 월드컵 기념관을 리모델링해 축구 관련 전시·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테마파크로 2017년에 재개관했다. 이곳에서는 축구 역사상 유의미한 사건과 이야기를 다양한 역사적 사료와 최신 미디어 기술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뛰기 전 순간을 360 VR(가상 현실)로 구현하였으며, 홀로그램을 통해 2002년 월드컵 영광의 순간을 박지성, 이영표 선수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

전시는 연간 6~12회로 기획전을 선보이는데, 올 하반기에는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아티스트 49명이 참여해 각자의 스타일로 2002년 월드컵의 기억과 영광을 재해석했다. 축구공 등 축구 관련 도구를 활용해 수학·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진로체험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 기자, 해설위원 등 현직 종사자를 강사로 초청해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현장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지만, 방학 시즌 아카데미가 열리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풋볼 팬타지움 입구
2 테마 프로모션 이벤트
3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 특별전



1



2



3

- **홈페이지** www.faentasium.com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서울월드컵경기장
- **문의** 02-305-2002

스포츠 360° 스마트 체험관

“첨단 기술로 미래 스포츠를 즐겨요!”

‘스포츠 360° 스마트(SPORTS 360° SMART)관’은 스포츠과학과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스포츠 콘텐츠를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관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빅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인데, 그 일환이 바로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360° 스마트 체험관이다.

이곳에는 스포츠 과학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인터렉션’, 미래 스포츠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플레이’, 야외 산책로에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트랙’ 등이 있다.

체험관에서는 바닥의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자기 신체 능력을 측정하거나, 무동력 트레드밀 위에서 가상의 걷기, 달리기 등을 해볼 수 있다. 첨단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현실감 있는 복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인공지능 복싱도 눈길을 끈다. 특히, 리얼큐브는 터치 센서와 동작 인식 센서를 이용해 20가지 이상의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교육용 신체 발달 체험이다. 이 외에도 농구, 축구, 피구, 핸드볼 등 구기 종목은 물론 사격, 컬링 등을 증강과 가상 현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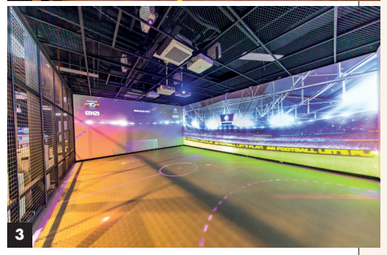
올림픽공원 야외 산책로에는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폴이 설치돼 있어 모바일 앱과 연동하면 다른 사람들 기록과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며 경주할 수 있다.



1



2



3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파크텔 지하 1층
- **체험** 소요 시간 80분 / 네이버 예약(유료)
- **문의** 02-410-2543

1 내부 전경
2 센서 기술로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리얼큐브’
3 가상·증강 현실로 농구, 축구를 할 수 있는 멀티 스포츠 체험존

돌담 따라 물길 따라 마을 산책

아산 외암민속마을

송악면 설화산 자락 외암민속마을에 들어서자 짚 태우는 냄새가 난다. 늦가을 시골 마을에서 맡을 수 있는 정겨운 향이다. 추수가 끝난 마을 앞 다랑논에선 허수아비들이 두 팔 벌려 반긴다. 논두렁 뒤 구릉에 터 잡은 초가들이 올망졸망 늘어서 가을볕을 쬔다. 초가와 기와집 사이로 난 돌담길에 삐죽이 고개를 내민 감나무들이 까치밥을 대롱대롱 남겨두고 겨울을 기다린다.

글 · 사진 _ 김혜영 여행작가

건재고택 솟을대문 앞 아름드리 은행나무



500년 전통 예안 이씨 집성촌

외암민속마을은 예안 이씨들이 조선 명종 때부터 약 500년 동안 사는 집성촌이다. 양반 고택과 초가 등 전통가옥 60여 채가 조선 후기 향촌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짓고, 해마다 초가지붕을 새로 올린다.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장승제, 짚풀문화제 같은 전통 행사와 세시풍속을 살뜰히 챙긴다. 달집태우기는 전국에서 구경꾼들이 모일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진다.

남향으로 자리 잡은 마을 앞에 '앞내'라 불리는 실개천이 흐른다. 마을 동북쪽으로는 설화산이 우뚝 솟았다. 풍수지리를 모르는 까막눈이어도 배산임수 지형임을 눈치챈다. 앞내에 놓인 다리를 건너 마을에 들어서자, 눈이 부리부리한 장승 한 쌍이 맞아준다. 장승 아래에는 할머니들이 자리를 펴고 앉아 쑥떡, 감, 나물 같은 먹을거리를 판다. 장승 오른쪽으로는 계단식 논이 넓게 펼쳐진다. 추수 마친 논이 논두렁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엿장수도 길 잃는 긴긴 돌담길

투호, 굴렁쇠, 윷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선다. 집마다 납작한 돌로 쌓아 올린 돌담을 둘렀다. 돌담 위에 단풍 든 담쟁이덩굴과 호박이 넉살 좋게 올라앉았다. 돌담을 모두 이으면 길이가 5.3㎞나 된다고 한다. 옛날에 엿장수가 이 마을에 엿을 팔러 왔다가 돌담이 길어 길을 잃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여행자는 그저 길고 긴 돌담이 이끄는 대로 걷는다. 돌담 너머 보이는 감나무, 살구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덕에 마을이 풍요로워 보인다.

마을 안에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도 있고, 단출한 초가도 있다. 사립문을 활짝 열어 놓은 초가 마당에는 고추, 호박, 산나물 등이 널려 있다. 기와집은 담장이 높아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마당이 보인다. 기와집 대문에 '참봉댁', '참판댁', '종손댁', '송화댁', '교수댁', '감찰댁' 등 주인장의 관직명이나 출신지명을 따서 택호를 붙여 놓은 것이 흥미롭다. 대부분 예안 이씨 후손들이다.

담장 높은 예안 이씨 고택들

마을 중심에 자리한 건재고택은 이 마을 고택 중 으뜸이다. 영암군수가 살았던 집이어서 '영암 군수댁'이라고도 불린다. 지금은 그의 아들 호를 따 '건재고택'으로 전해온다. 아산시에서 건재고택을 사들인 뒤로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하루 세 차례 개방한다.

건재고택은 조경이 빼어나기로 이름나, 궁금하던 참이다. 솟을대문과 높은 담장 안에 감춰졌던 수백 년 된 정원수, 인공수로와 연못, 빨래터를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온다. 논에 물을 대는 봄이 오면 바짝 마른 수로와 연못에도 찰랑찰랑 물이 찬다고 한다.

1 마을 입구에서 바라본 계단식 논과 초가들
2 지금은 보기 드문 옛날 방식으로 감 말리는 풍경
3 건재고택 안 돌담 아래 조성된 옛 빨래터





건재고택 솟을대문 맞은편에는 생김새가 수려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마주 보고 있다. 솟을대문 앞에는 노란 은행잎 카펫이 깔렸다.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따스한 가을볕을 쬔다. 이따금 부는 바람에 은행잎이 '좌' 소나기 소리를 내며 흩날린다. 건재고택 입구에 서 있는 수령 60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는 마을의 터줏대감처럼 늠름해 보인다.

물길을 이용한 생활의 지혜

외암민속마을은 예로부터 물을 중시했다고 한다. 풍수지리적으로 설화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것. 설화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마을 동쪽을 지나 마을 남쪽(입구) 외곽도로를 따라 흘러나가는데, 이 물길의 상류를 인위적으로 터서 마을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물길은 여러 가옥을 통과한다. 몇몇 양반가들은 이 물길을 생활용수와 방화용수로 쓰고, 마당에 곡수(曲水)와 연못을 만들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사용했다. 건재고택이 물길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집이다.

마을 입구로 돌아와 마을에서 열리는 전통 체험행사를 살펴본다. 농사 체험과 두부, 고추장, 강정 등의 음식 만들기 체험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진행한다. 투호, 널뛰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와 한지 나무등, 한지 손거울, 한지 부채 만들기, 천연염색 같은 공예 체험과 한옥 체험은 연중 할 수 있다.

외암민속마을

주소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5
문의 010-9019-0848
관람 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관람료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000원



학생주도수업 설계 돕는 ‘플랜보드’

글·사진 _ 김소정 인천만수초등학교 교사(업글티쳐스 회장)

“우와! 우리 또 프로젝트 수업 하나 봐!”
내가 만드는 재밌는 학습 계획, 플랜보드 프로젝트 학습을 함께하며 한 학기를 보낸 아이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학습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 다소 막막했던 처음이 언제였냐는 듯 두 번째, 세 번째 플랜보드 프로젝트 학습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은 플랜보드와 함께하는 학습을 즐기고 있었다. 플랜보드를 활용한 학습 계획 설계 자체를 놀이처럼 즐기는 학생들도 생겼다.

학생주도성 성장 교사 모임, 업글티쳐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 학생들의 주도성 부족은 수많은 기사를 동반하며 교육 현장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은 결코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강조된 역량은 아니었다. 이미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학생주도성을 2030년에 성인이 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꼽았다. 이렇게 학생주도성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학생주도성이 궁금해졌다. 그렇게 학생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운영에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이 ‘업글티쳐스(Up-Grade Teachers)’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학습하고 행동하는 역량’

여러 논문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글티쳐스가 정의한

학생주도성의 의미이다. 곧이어 우리는 주도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계획을 설계하고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경험을 한다면 주도성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학생 주도의 학습 계획 설계를 돕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학생들의 학습 계획을 교사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자료, ‘플랜보드’를 개발했다.

플랜보드 활용 학생주도 수업

플랜보드란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프로젝트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활동 카드를 제시한 수업자료이다. 단계별 활동 카드들은 연계된 성취기준과 매칭하여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교육과정과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플랜보드의 활동 단계는 ‘주제’, ‘탐구’, ‘표현’, ‘공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 과정의 확장을 위한 ‘도전’ 단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혹은 배워야 하는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주제들을 추출하여 범주화하였다. 탐구는 학습 주제를 알아보고 학습하는 방법을, 표현은 학습한 내용을 나타내는 방법을, 공유는 자신이 학습하고 표현한 것을 나누는 방법을 활동카드 형태로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검색 △실험실습 △감상하기 △토의토론 등과 같은 수업 활동명이 적힌 카드를 붙여 놓은 칠판(플랜보드)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플랜보드 기획 과정

1)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표 및 성취기준 분석
2) 교과별 성취기준 구현 학기 및 단원 분석
3) 내용 요소 중심의 학습 내용 추출, 기능 중심의 학습활동 추출
4) 플랜보드 프로젝트 설계
 - 주제, 탐구, 표현, 공유의 학습단계 정리
 - 학습 내용 및 학습활동 구조화
5) 학습활동 및 성취기준 연계

섬세한 수업 준비는 교사의 몫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많다. 하지만 원하는 방법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면 당황하고 머뭇거린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나열하고, ‘이 중에서 배우고 싶은 방법을 골라봐!’라고 하면 매우 많은 활동들을 골라낸다. 플랜보드 속 활동 카드들은 학생들이 학습하고 싶은 학습 방법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플랜보드는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계획(Plan)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판(Board)인 것이다.

플랜보드 프로젝트 수업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생소한 플랜보드를 마주하며 낯을 가리기도 했고, 너무 많은 활동을 다 하고 싶은 아이들, 활동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학생 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지만 아무리 학생 주도로 만드는 계획이더라도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

계획은 즐거운 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결국 우리는 말 그대로 플랜보드는 학습 계획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구'임을 인정했다. 결국 플랜보드를 활용해서 섬세하게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발문을 하는 것, 즉 유의미한 학습 계획 수립을 위해 수업을 섬세히 준비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이라는 것에 집중했다.

우리는 플랜보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학습 계획 자체를 성찰하며 원활한 학습 운영을 위한 구조화된 학습 계획이 무엇인지 같이 토의하기도 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학습 계획대로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지?' 등의 발문으로 가능성과 효율성, 준비도를 성찰하며 학습 계획을 정교화하기도 했다.

교사와 학생 간 주도성 균형 필수

유의미한 학습 계획 수립 다음은 책임 있는 실천, 학습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플랜보드에 따라 학습하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했다. 학생 주도 학습이지만 학생들이 해본 경험이 적거나 그 방법을 모르면 학습을 스스로 이어 나갈 수 없었다. 때론 학생들이 해보지 않은 학습활동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 외에 다른 교과 학습 내 재구성 수업을 하기도 했고, 저학년의 경우 탐구 단계의 주도성을 교사에게 옮겨와 교사의 안내와 함께 배우기도 했다. 결국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주도성 균형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 경험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아이들과 플랜보드 프로젝트를 지속하며 느끼는 점은 '세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 골라 학습 계획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를 보이고 학습 과정에 몰입했다. 몰입을 시작한 학습은 수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 학습은 수업 시간을 넘어 일상이 되기도 했다.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도서관을 오가며 관련 도서를 빌려 읽기도 했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토의를 이어 나간 적도 있었으며, 주말 동안 스스로 알아보고 만들었다며 학습 결과물을 가져온 학생도 있었다. 내 삶이 배움으로 가득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수업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터득하고 있었다.



업글티쳐스 협의회



플랜보드 이해하기

'학습을 즐기는 경험'이 만든 변화

해를 거듭하여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수록 그 어려웠던 처음이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플랜보드 프로젝트 수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을 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랜보드 프로젝트 학습을 하며 학생들은 성장통을 겪기도 했지만 분명 성장했다.

교사로서도 많은 변화를 느낀다. 먼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아이들의 요구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보고자 했다. 학생들에게 '안 돼!'라고 말하는 횟수가 줄었다. 전에는 위험해서, 복잡해서,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로 열어두고 생각하니 수업도 다채로워졌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하는 한 마디, 활동지에 적었던 문장들을 다시 수업에 담아냈고, 수업 속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요소를 찾아내는 순간 아이들은 흥분하고 몰입했다. 그 모습에 교사로서 또 감화되어 점차 아이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

프로젝트 학습을 거듭할수록 어려웠던 고민 지점은 언제 그랬냐는 듯 흐려졌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수업의 모든 과정이 고민 덩어리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로젝트를 이어갈수록 점차 나도 학생들도 학습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친구들과 모여 학습 주제를 탐색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습을 즐기는 경험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프로젝트에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서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따로 하겠다는 아이들이 속출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프로젝트 속에서 서로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서로 다른 의견의 중간 지점을 찾고자 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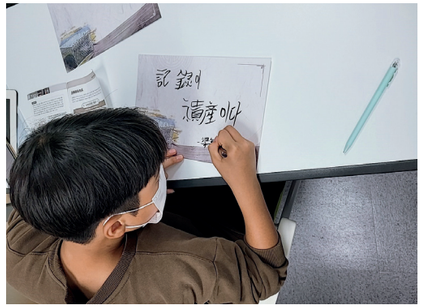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교육 활동에는 생기가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다. 어렵고 더디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결국 남는 '뿌듯함'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되고, 새로운 학습에 대한 원동력이 된다.

혼자보기 아까워서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안지민 명예기자





기록이 유산이다

대통령기록관 1층 교육실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휘호처럼 아이들이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남기고 싶은 휘호를 직접 액자에 그려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양하고 멋진 글귀를 완성하여 진지하게 체험에 임하는 아이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쓴 문구, 참 멋지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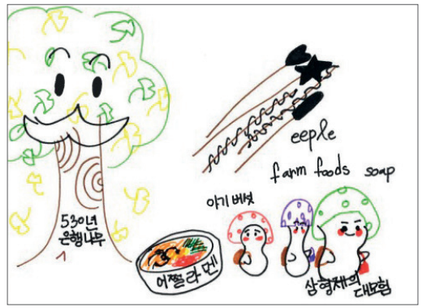
김인순 두륜중학교 교사



우리 지역 갯벌에서 무엇이 날까?

해남은 남녘, 뭍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남 두륜중은 두륜산 남동쪽 자락 북일면에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륜산 산허리를 타고 올라와 오소재에 이르면 북일면 앞에 펼쳐진 내동 앞바다와 너른 들판이 훤하게 트여 장관을 이룹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내해이자 아름다운 마을의 삶터이지요. 우리 학생들은 지역의 갯벌 체험을 통해 우리 지역 갯벌에서 나는 생명을 만나고, 연안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삶터이기도 한 까닭에 조심스럽게 마을 이장님의 협조를 구해 물 좋은 때를 잡아 갯벌로 나섰답니다.

홍민기 명예기자







놀면서 배우는 재미있는 사회적경제

청양군 사회적경제 상생투어는 청양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 청년, 이주여성이 함께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월 4~6일에는 청소년 160명이 원도심 투어, 청춘거리 투어, 사회적농가 체험, 목공예 체험 등을 경험하며 청양의 사회적경제를 생생하게 배웠지요. 하루 동안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운 사회적경제를 그린 아이들의 그림일기가 그날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강현 명예기자



가을바람 따라 떠나는 역사탐방

가을바람 산들산들 간지럽게 부는 날, '즐거운 신라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선생님의 퀴즈를 맞히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연신 질문과 답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역사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니 행복한 웃음이 절로 번집니다. 경주 월성초등학교의 마을 연계 프로그램, '즐거운 신라 탐방'은 지루하기만 할 것 같은 역사 수업을 교과서 밖으로 끄집어낸 알차고 즐거운 역사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백희 명예기자



동아리경진대회 대상 국무총리상 대천여자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유예수

네 끼를 펼쳐라!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유·예·수'팀은 충남 보령시에서 참가한 3인조 연합댄스팀으로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는데요. 2개월간 매일 5시간씩 연습했다는 아이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김동석 님(서울 동대문구)

<특별기획>을 읽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향후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현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개발·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의 양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각급 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적인 디지털 초강국'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본다.



조석 님(경기 의정부)

<에듀피플>을 읽고

한글날이 있는 10월을 맞아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님 인터뷰를 관심 있게 읽었다. 한글이야말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며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원천, K-컬처의 뿌리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훌륭한 우리 한글 자체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한글을 통한 한글문화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김영수 관장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윽한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것처럼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맑고 향기롭게 퍼져 나가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최영지 님(대구 달서구)

<교육포커스>를 읽고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교육복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 위주의 지원사업이 실행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는 교육안전망이란 용어로 바뀌었지만, 그 근본은 교육격차 해소에 있음을 알게 됐다. 학생이라도 엄연히 능력 차가 있기 마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서발달과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동시에 실행돼야 한다. 이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이뤄지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법도 마련됐다. 앞으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연구와 협조체계를 잘 갖춰 학습자의 삶과 복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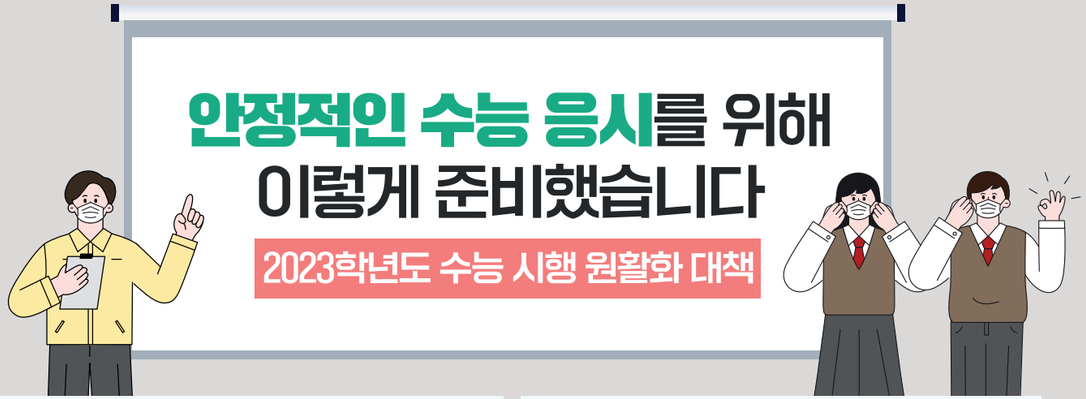
EVENT

(p.16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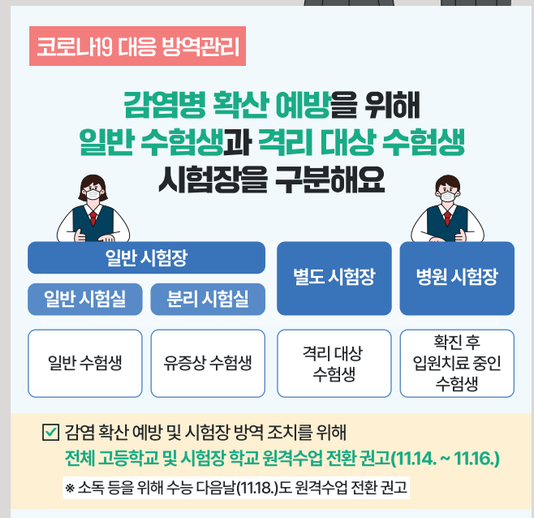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OOOO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OOOO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OOOO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에는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OOOO 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OOOO 진단과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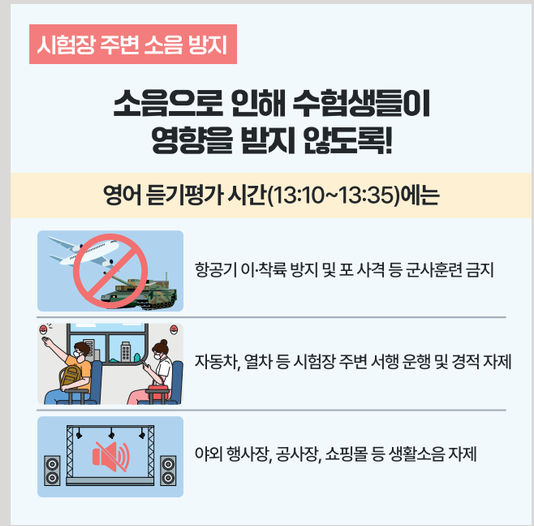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교육부 질병관리청